

#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그 허와 실

지난 4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어 약 2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의 기록이 삭제되었다. 한때 신용불량자의 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할 만큼 심각했음을 비추어 보면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구제되는 신용불량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된다하더라도 일부의 견해처럼 일률적으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없어지지만 그들이 갚아야 할 채무와 연체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30만원 이상의 금융 채무를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연체자에게 붙여 지던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한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들은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그 피해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 금융거래의 확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전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 강도높은 채권추심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난은 물론 한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전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금융기관이 책정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빚을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의 연체된 채무와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전

산망에 남게 되어 연체 금액을 다 갚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는 정보가 남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자산능력, 경영상태, 개인별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금은 개인별 연체정보가 금융거래를 하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지만 앞으로는 세금 체납, 과태료 체납 등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해 거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 취업규제 일부 완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회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신용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도 앞으로는 취업제한의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상 무분별한 신용조회를 막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용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입사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계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소규모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회사라면 지원자들의 신용조회 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필수 코스의 하나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이 재무나 회계 등 회사 재정과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는 입사지원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할 가능성이 크기에,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취업제한 등 모든 제약이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 ■ 향후 전망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누가 신용불량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에 앞으로는 개인정보평가회사(Credit Bureau, CB)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 등 2개 회사가 있다.

특히, 이들 개인정보평가회사들은 연체 등 신용불량정보 뿐 아니라 소득이나 대출 상환실적 등의 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들의 신용정보 관리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이에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자신의 신용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 채무는 물론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도 제때 납부해야 신용정보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이 가능해도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대출한도도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